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니
남에게 상처 줘서는 안된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29일)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온라인 명상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

## '비더피스 사람들' 평화명상대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월 21일 세계평화의날을 맞아 한국불교 유수의 명상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세계 명상가들이 온라인으로 뭉친다.

불교환경연대, 지혜마을 모지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Be the peace 사람들'은 9월 21일 오후 9시 세계평화의날을 맞아 온라인 명상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에서 '2020 Be the peace'(이하 비더피스 명상대회)를 연다.

2019년 종로 보신각마당에서 열린 첫 비더피스 명상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더피스 명상대회가 진행되는 명상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는 마인드디자인이 불교계 최초로 지난 5월 런칭한 명상관련 전문 온라인 플랫폼으로 마음챙김 관련 숙박, 쇼핑, 행사를 비롯한 정보를 하나로 모은 곳이다.

이번 비더피스 명상대회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작은 제한이 있다. 하얀 옷이란 일종의 '드레스코드'를 맞춰야 한다. 이는 조용히 앉아 함께 명상을 하며, 세계 평화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일종의 약속된 퍼포먼스다.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온라인 화상프로그램 'Zoom'을 활용한 비더피스 명상대회서는 사전행사로 오후 8시 30분부터 자유평화마당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비롯해 자비선명상원의 지운 스님 등 명상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평화 메시지를 나눈다.

오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앉아서 묵언으로 명상이 진행된다. 이후 오후 9시 30분부터 40분까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1시간여의 행사가 마무리 된다.

비더피스 명상대회는 6년 전인 2014년 세계평화의날인 9월 21일을 기해 미국 등에서 시작됐다. 한국에는 2019년에 도입됐다. 9월 21일 이전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 명상, 요가, 춤, 노래 등을 선보이는 세계인들의 콘텐츠가 비더피스코리아 페이스북(www.facebook.com/bethepeacekorea)에서 공유된다. 비더피스 이후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평화의 메시지들이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김영수 지혜마을 모지리 대표는 "평소에 명상을 하던 분들이 각자 해오던 방식으로 평화명상을 진행한다. 샌프란시스코, 뉴델리 등 세계 각국의 명상가들과 서울과 성주 등 한국 전국 각지의 명상단체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모이는 기회"라며 "평화를 원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흰옷을 입고 참여 가능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더피스 행사는 사회 치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개대를 모으고 있다. 명상은 개인수행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적 갈등치유의 방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미주현대불교 창간 30주년을 맞아 LA고려사에서 열린 각산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명상대회에는 150달러 참가비에도 참가정원을 넘은 신청과 이후 SNS로 확산되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사회 치유를 위한 한강걷기명상대회도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개최했다.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걸으며 기부동참과 함께 사회갈등 해소에도 마음을 모은 바 있다.

**불교계 첫 명상플랫폼 통해**
**명상지도자 · 대중 한자리에**
**Zoom으로 화상 명상 진행**

**21일 오후 9시부터 1시간여**
**흰 옷 맞춰 입고 평화메시지**
**SNS 통해 위기 극복공유도**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제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영성의 심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누고 구분할 수 없다"며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 대부분은 나와 너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연결된 존재로서 서로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해결되는 것들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비더피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주관단체인 'Be the peace 사람들'에는 마인드디자인, 불광미디어, 불교환경연대,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사)자비명상,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름다운사람들,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지리,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행복수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02)2231-2011



**"탄신 100년 혜암 스님, 그립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혜암 성관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9월 5일 해인사성보박물관에서 혜암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 기념전 '빈가보장(貧家寶藏) – 가난한 집에 보물'을 개막했다. 전시에는 혜암 선사의 묵서와 평소 사용하던 장삼, 가사, 안경, 삭도, 친필 원고 등 유품이 공개됐다. 또한, 9월 5~6일에는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 선사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진행됐다. 사진은 특별전 개막식에서 스님들이 혜암 선사 진영에 차를 올리고 있는 모습. 〈학술대회 기사 3면〉 사진=하성미 기자

# 손상좌까지 의료비 혜택… 승보공양으로 회향

## 조계종 승려복지회, 근성 스님 49재서 표창 수여

"우리 절은 4대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절이니 작은 나눔입니다. 노스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이 간직하셨던 장례비를 나눕니다."

서울 수안사 묘담 스님이 지난 3월경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건넨 봉투에 적힌 글이다. 봉투에는 승보공양금 1000만원이 담겨 있었고, 스님은 한달 뒤인 4월경 또다시 1000만원을 승려복지회에 기탁했다. 그리 풍족하지 않은 절 살림에도 큰 돈을 연이어 승보공양금으로 후원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수안사를 일궈낸 근성 스님부터 상좌 묘담 스님, 손상좌인 도희 스님까지 총 3대가 승려복지회 의료비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것. 승려복지회 출범 이래 3대가 수혜대상이 된 첫 사례다.

근성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 출신으로, 1957년 수안사를 창건해 움막에 다름없던 사찰을 작지만 어엿한 포교당으로 일궈낸 주역이다. 치열한 정진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보시금 한번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고,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함께 보듬으며 포교에도 매진했다. 그렇게 50여 년 세월이 지난 후 수안사는 근성 스님의 상좌 묘담 스님과 손상좌 도희 스님까지 3대가 함께하는 사찰이 됐다.

수안사와 승려복지회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8년 무렵, 연로한 근성 스님이 병고로 인한 병원 치료가 장기화되던 시기였다. 상좌 묘담 스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에 근성 스님이 모아둔 장례비를 치료비로 사용했고, 비슷한 시기 묘담 스님까지 당뇨와 디스크 등으로 병원신세를 졌다. 부족하기만 한 살림에 늘어가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손상좌 도희 스님이 승려복지회의 존재를 전해 듣고 의료비 지원을 문의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수안사 스님 3代 수혜 받고**
**두 번에 걸쳐 1천만 원 전달**
**혜택 · 후원의 선순환 '귀감'**

승려복지회는 근성 스님의 치료비로 2018~2020년까지 3년에 걸쳐 1500여만 원을 지원했고, 묘담 스님 역시 2018~2019년 1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목 부위 혹 제거 수술을 받은 손상좌 도희 스님의 치료비 100여만 원도 지원됐다.

지난 3월 묘담 스님이 승려복지회 승보공양금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한 이유는 명확했다.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기에 다른 스님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것. 이어 4월에도 은사 근성 스님의 장례비를 다시 모아 1000만 원을 승보공양으로 기탁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안사는 3대에 걸친 수혜의 첫 사례이자 승보공양의 취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모범사례로 정착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승려복지회는 지난 7월 18일 근성 스님이 입적한 이후, 수안사를 승려복지 활성화 사례로 선정해 근성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49재날인 9월 4일 서울 수안사를 찾아 표창패를 수여했다. 승려복지회는 "근성 스님의 49재를 맞아 스님의 수행이 승가 본연의 공동체 회복과 불교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에 감사를 전하고자 표창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과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려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승보공양 모연을 진행하고 있다. 02)2011-1726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2564(2020)년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모연안내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내일"을 선물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행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3000배의 염원 그대로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동참 부탁드립니다.
동참계좌 하나은행 / 271-910005-95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동참문의 02-723-5101 카카오톡 : @jabinanum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